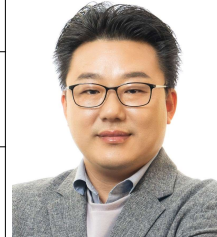


( 차기회장 /  부회장)  
입후보자 소견서

성명	조욱	
소속	울산과학기술원	
직위	부교수	

독일 Darmstadt 공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시절 2013년 제2회 ICAE 참석을 계기로 전기전자재료학회와 인연을 맺은 후 2014년 귀국과 함께 시작된 전기전자재료학회와의 인연이 어느덧 10년을 헤아립니다.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학회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선후배 회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보았고 그 결과 몰라보게 달라진 학회의 모습을 보며 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. 여느 회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제 바램은 전기전자재료학회가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회로 만드는 것입니다. 이에 전기전자재료학회는 다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우수한 부분은 계승하여 회원 모두가 학회에 대한 소속감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고 주변 지인들을 기꺼이 초빙하여 지속해서 발전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2024년도 회장 당선자이신 여동훈 차기 회장님께서 보여 주신 비전은 저와 모든 학회 회원님들이 공감하고 또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동훈 차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확대된 타 학제와의 교류를 위해 부족하나마 저도 제가 가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수석 부회장님께서 공약하셨던 세 가지 중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, 즉 학회 존립의 근간이 되는 국문/영문 학술지가 그 본연의 목적성을 회복함은 물론 작금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 이를 위해 학회 회원님들과의 최대한 많은 교감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강구하여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학회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, 2024년 한해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학회의 상황과 미래를 보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, 또한 후배 회원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으며 학회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

울산과학기술원 조욱 배상